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구원, 세션 3, 그리스도와의 연합 계속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 그리스도와의 연합 계속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며, 특히 구원의 적용을 이해하는 가장 포괄적인 방법,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했고, 그것이 확정적이고, 개인적이고, 영구적이거나 지속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고려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여자로 두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고, 그와 함께 승천하여 하늘에 앉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와 함께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구절들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20은 어때요? 바울은 칭의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더 이상 사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그런 문장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야기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콜로새서 2:20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만지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마십시오.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것들처럼 나쁜 이미지는 아니지만, 재밌는 이미지입니다. 1920년대 여성들이 어떤 패션이나 형태로든 술에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에서 바닥까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지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는 현수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바울이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대표합니다.

농담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금지 슬로건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2장 20절, 골로새서 2:20.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초등적인 영들에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살아 있는 것처럼 세상의 규정에 복종하느냐? 만지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 . 인간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라 사용됨에 따라 모두 멸망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스스로 만든 종교와 금욕주의를 장려하고, 거룩함과 신체에 대한 엄격함이라는 이름으로 육체적 욕망을 부인하는 데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지만, 육체의 탐닉을 멈추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악마의 영역, 죄, 세상에 죽었다면,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십자가에 다시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지금 당장 콜로새서 3:1로 넘어가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니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지 않았지만, 3:1과 2:20에 따르면, 그 의미는 모든 복음주의 주석가가 말하듯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죽었고, 당신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당신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당신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두 하위 범주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랐고, 여기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상에서의 삶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의 가족 목록 중 하나,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그의 규칙 중 하나가 같은 장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저는 장 구분이 영감받지 않은 것은 알지만, 제가 읽지 않을 3:18에서 4:1 까지에서 바울은 가정에서 믿는 자의 책임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상에서의 삶을 무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삶을 사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그와 함께 죽었고, 실제로 그와 함께 부활했고, 그와 함께 승천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함축된 의미는 여러분이 아버지의 오른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랐습니다. 로마서 6장은 여기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한 그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죄로 이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불쾌해합니다.

바울은 은혜에 대한 가르침의 목적이 경건함을 증진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로마서 6:1, 은혜가 더해지도록 죄에 머물러야 합니까? 다시 그 단어가

있습니다. 결코, 아니, 결코, 그 생각을 멀망시키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죄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그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죽었으며, 특히 이것은 기독교 세례에서 교회 생활에서 경험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장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죽음 안으로 장사지내었느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이 전개되면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단번에 영원히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거듭거듭 구원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죄의 권세가 당신을 지배하던 것이 깨졌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당신은 더 이상 폭군인 죄의 자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당신은 죄에 죽었습니다. 죄는 당신에게 적절한 권능이 없으므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물론 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해이며 심지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칭의에서 죄의 형벌에서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성화에서 죄의 권능에서도 해방하셨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없어지고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6절. 사망이 그에게 더 이상 주관하지 아니하고 사망이 우리에게 더 이상 주관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셨습니다. 전자는 그가 우리를 죄의 잔인한 지배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자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일으켜져,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덕분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자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습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6. 저는 죄와 싸우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중독이라는 죄와 오랜 세월을 싸웠고, 이 구절은 그를 오랜 세월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깊은 구덩이를 파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를 우리의 세 가지 큰 원수인 세상, 육체, 마귀와 관련하여 제시한 후, 아마도 에베소서 2:1-3, 4절에서 간결한 문맥에서보다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풍부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우리가 허물로 죽은 상태였을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의 전형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좀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그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내 아들아, 이제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아니야, 친구야. 내 친구가 말했어, 죄가 내 문을 두드리고 유혹이 올 때,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있다고 말했어. 나는 하늘에 앉아 있어.

그것이 내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특히 그 구절을 사용하여 그의 삶에서 그 속박을 깨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땅에서 죄와 씨름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승천하여 하늘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이 종교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이것은 신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고, 적용되고, 계시된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의 원수로 체포되었고, 그리스도는 그의 영으로 그에게 그것을 계시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와 우리의 연합이 얼마나 가까운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는 정도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구적인지. 우리는 지금 그의 오른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의에서 나중에 보존에 대해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공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다시 올 것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오심을 가질 것입니다. 농담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로마서 8장보다 더 최근에 콜로새서 3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두 곳에 다 있습니다. 콜로새서 3장,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다면, 1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저 그들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2장, 당신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비슷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간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이신 분이 나타나실 때, 당신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고, 저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이신 분이 나타나실 때 재림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주석가를 모릅니다. 그것은 재림 동사입니다.

나타나라. 하지만 놀라운 일이 여기 있다. 그러면 너도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오심이라는 단어는 두 번째 오심의 그리스도와 함께 사용된 동일한 단어의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당신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다시 연합의 언어가 나타나실 때, 당신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요. 루터는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너무나 확실하게, 친밀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재림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오, 그것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연결되어 있어서 그의 아들 또는 딸로서의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가 돌아오실 때에만 드러날 것입니다. 오, 우리는 지금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은 모릅니다. 저는 일요일 예배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분명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온 마음, 영혼, 정신, 힘을 다해 주님,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일 끊임없이.

터무니없어. 아니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해, 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신.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저는 우리의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우리의 죄, 제 죄를 고백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요하고, 말하자면 우리의 재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일하게 죄를 속죄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칠 때, 그는 우리를 그의 죽음에 합치게 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죽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를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한 그의 부활과 합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그의 성육신에서 재림까지 이어지지만, 그의 구원의 핵심과 영혼은 그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성취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죽음이 미래의 죄를 속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교사를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셈이고, 거짓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 대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허물로 넘겨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함을 위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에 대한 벌을 치르시고, 그의 부활은 정죄받고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무죄와 새 생명을 가져다줍니다. 그리스도는 현재와 관련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 죽음 속으로 그와 함께 묻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삶에 대한 죄의 폭정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미래에 대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화해한 후에는 얼마나 더 그럴까요?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구원받을까요? 로마서 5장 10절.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도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그는 우리를 일으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그와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다가올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은혜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천사들과 우주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진열장입니다.

에베소서 2:4-7,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실 때 그의 사랑과 은혜와 친절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두 번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한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살펴보지 않은 구절을 지금 언급하겠습니다.

간절한, 첫째, 창조물의 간절한 기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시를 간절히 기다린다. 그것은 로마서 8:19이다. 내 친구가 여기서 나에게 하나를 몰래 넣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자신의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네, 창조의 간절한 기대는 간절히 종말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성경의 마지막 책의 이름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번역이 모호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ESV조차도 이것이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호하게 합니다. 저는 ESV를 좋아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ESV입니다. 저는 이것을 만들고, 제가 말했듯이 이 노트를 만든 Christian Standard Bible을 사용하고 인용해 왔지만, ESV의 8:20, 8:20, 어 19에서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시입니다.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를 받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재림입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어떤 성경에서 때때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사용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7, 데살로니가후서 1:7, 베드로전서 1:13, 요한계시록 1:1,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런 곳에서 묵시적, 묵시적, 묵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7, 데살로니가후서 1:7, 베드로전서 1:13, 요한계시록 1:1. 믿는 자들이 계시를 받고, 돌아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너무 싸여 있어서 그와 우리가 다시 올 때만 완전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은혜로운 주님을 인내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를 위해 살라는 큰 위로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같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콜로새서 3장 4절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의 재림 때 나타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구원 사건과 그의 구원 사건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님과 그의 구원 사건에 너무나 연합되어 있어서, 그가 돌아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는 죄가 제거되어 우리는 아버지의 왕국에서 태양처럼 빛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48, 마태복음 13:48, 아마도 다니엘서를 암시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을 보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의 적용의 모든 측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일어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에게 합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축복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칭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입양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반복으로 여러분을 지루하게 하는 건 그만둘게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인내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은 구원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측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일부입니다. Richard Gaffin의 말은 적절합니다. 그의 책, *시력 이 아닌 믿음으로, 바울과 구원의 질서*, Richard Gaffin.

저는 그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중심적인 구원론적 현실은 영으로 창조된 믿음으로 높임받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 또는 질서의 핵심, 본질입니다.

이런 이유로 구원의 적용의 각 개별적인 측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거듭남, 칭의, 입양, 거룩함, 보존, 영광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별개로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스꽝스럽고 불가능하지만 그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보았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베소서 2:4, 5. 비록 우리가 허물로 죽었어도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함께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하위 집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모든 구원의 혜택을 얻는데, 그 중 하나가 거듭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의롭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을 우리를 위해 죄로 만드셨으니, 이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을 우리를 위해 죄로 만드셨으니, 이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즉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에서 얻은 나만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의로움,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3:9. 고린도후서 5:21로 돌아가서, 루터의 유명한 대교환. 그리스도는 죄가 없고 의로우시다. 우리는 그 반대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돌리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을 우리를 위해 죄로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은행 계좌에 그리스도가 부여한 의가 적립되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입양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부름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줄 수는 없다. 다른 것들은 모두에게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

저는 우리가 그에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물론,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자로서 글을 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26, 27.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중 한 가지 방법은 사실 사소한 방법이며, 종종 눈치채지 못하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말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하느님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복종시키는 데 사용한 구절. 로마서 13:14.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육체가 욕망을 충족하도록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은 육체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구절은 그에게 번개처럼 들이닥쳐 무너졌고, 그것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어머니 모니카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전해준 복음을 기억했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었고, 여기서도 같은 개념이 사용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시적 명령적 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적 음성으로 행하신 일, 지시적 분위기를 말하며, 사물의 방식을 표현하신 일,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로마서 13:14에서 그것은 명령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말하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명령,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권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의 지시에 기초합니다.

지시적 진술,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진술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 명령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동기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시적 진술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의 기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옷, 그 구절이 소개되는 방식,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교 세례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세례의 의미 중 하나는 입양입니다.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맞죠, 몸에 입는 것과 같이, 기독교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입양을 포함합니다. 믿음을 통해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옷이 몸을 덮듯이,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덮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입양이 일부인 포괄적인 개념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자연적 아들됨, 그의 영원한 아들됨, 그리고 심지어 그의 아들됨은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 인정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처음 몇 구절).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으로 선포하셨고, 그의 죽은 자의 부활은 그의 영원한 자연적 아들됨이 우리의 아들됨이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되는 근거가 됩니다.

입양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영원한 아들인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은혜에 근거한 아들 또는 딸이 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일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의미는 실제로 재창조됩니다. 그것은 선행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창조의 일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도록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10. 우리는 선행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됩니다.

우리의 점진적 성화는 그리스도의 선한 슬픔과 별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그와 함께 죽음으로써 죄의 권세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일으켜져,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의 연합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초입니다. 로마서 6:1-14.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를 보존하시는 것은 그의 아들과 연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리스도도 예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도 예수 안에서 그와 연합된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믿는 자들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정복자 이상이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의 첫 구절과 마지막 두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는 보존이 포함됩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의 영광은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당신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납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 안에서 그와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의 영광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정체성은 예수님의 돌아오실 때에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그와 함께, 그와 연합하여,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종 구원은 큰 영광을 수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14.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무게. 고린도후서 4:17. 바울은 말을 쌓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더 이상 쌓을 수 없어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선거 교리를 다를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역사적 정찰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자체를 실제로 연구하여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3, 그리스도와의 연합 계속입니다.